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모님의 모친 성 안나

루가 제10주일

성 빠따비오스 수사

제8조, 조과복음 3(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에페소 4,1-7 / 봉독서 328

. 복음경: 루가 13,10- 17 / 129. B 7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모님의 모친 성 안나의 잉태와 안나 예언자(사무엘 예언자의 모친)

우리 교회는 12월 9일에 두 분의 거룩한 어머니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두 분이 살았던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은 테오토코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 다른 한 분은 사무엘 예언자의 어머니로 ‘안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아이가 없었지만, 경이로운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 두 아이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모든 인류에서 선별되고 선택되어진’ 분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선물의 열매로 사제 곁에서 성전에서 자랐고, 예언자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날 같은 이름을 가진 ‘안나’ 두 분을 축일로 기념하는 것은 그분들이 테오토코스과 예언자를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한 어머니로 거룩한 아이를 낳았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알려주는 십자성호 이야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이며 구원사업의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세상의 죄악을 씻어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될 수 있었으며, 하느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플리아의 성 코즈마스가 들려주는 십자성호에 대한 가르침은 습관적으로 성호를 긋는 우리의 자세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줍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되새겨봅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많은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고귀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호이다.

- 십자성호로 흠 없는 성사를 축복하며,
- 십자성호로 낙원을 열며,
- 십자성호로 사탄을 쫓아버리고 불살라 버린다.

그러나 십자성호를 긋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을 죄에서 씻고 깨끗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긋는 십자가에 사탄이 불타버리고도 망친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면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손에서 십자가가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올라 하느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오른손의 세 손가락을 하나로 모아서 이마에 대고 이렇게 말한다. “천사들이여, 당신들이 하늘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종인 저도 이렇게 성삼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손가락이 세 개의 각기 다른 손가락이면서도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느님께서도 삼위이시나 오직 한 하느님이시웁니다.”

다음에는 세 손가락이 합쳐진 손을 배에 대면서 말한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성모님의 태중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기를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른쪽 어깨에 대면서 말한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느님 오른편에 계시는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왼쪽 어깨에 대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를 왼쪽에 있는 죄인들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허리를 굽히며 말한다. “나의 하느님, 당신께 예배드리웁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저승에 내려가셨던 것처럼 저도 묻히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부활을 나타내며 말한

✠ 3면으로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슈메만 신부의 마지막 말

미국의 성 블라디미르 신학교 학장이었던 알렉산더 슈메만 대신부는 1983년 추수감사절에 마지막 성찬예배를 집전하였고, 두 주일 뒤인 12월 13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슈메만 신부는 거룩한 성찬예배 — 그리스어로 ‘**감사**’라는 뜻이다. — 에 대해 가르치고, 글을 쓰고, 설교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바쳤다. 마지막 성찬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는 기도 형식의 짧은 설교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어 내려갔다. 이런 일은 그에게 아주 드문 일인데, 사실 그는 예배 때 결코 설교를 종이에 써서 하지 않았으며 대신 원고 없이 즉석에서 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은 그가 교회의 설교단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이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당시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과 영원한 기쁨도 얻을 수 있다.
-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 바친 감사의 성찬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의 기쁨과 평화, 의로움을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당신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그로 말미암아 이기심을 정화시켜주시고 ‘오직 필요한 것 하나’ 곧,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일깨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우리가 자유로이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우리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기쁨과 움직임과 거룩한 소음 속에서 축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이들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주님, 감사합니다!
-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하시는 일은 놀랍고, 당신의 기적들을 설명하기에는 어떤 말도 부족하나이다.
- 주님, 이곳에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멘!

▶ 아타나시아

☞ 2면으로부터 계속

다. “나의 주님,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니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

며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십자성호의 의미이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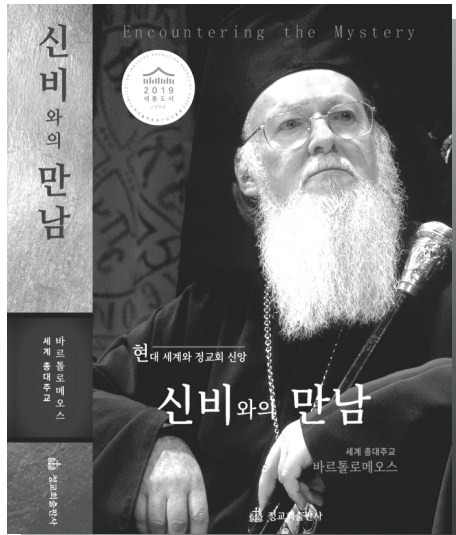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본 방문** ▷ 지난 11월 24일(일)~25일(월),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방문을 기해 일본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나가사키의 요셉 대주교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한국대주교이시고 일본의 대리주교(Exarch)이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수행을 받아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 『**신비와의 만남**』의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 2018년 세계총대주교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저서 『신비와의 만남』이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총대주교님에게도, 정교회출판사에도 큰 영예로 한국 사회에 정교회를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안드레아 축일 철야예배** ▷ 성 안드레아 축일(11월 30일)을 맞이하여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예배를 드렸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가 공동 집전하여 대만과, 리따니아, 아르또플라시아, 예수기도, 조과와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11월 29일(금) 저녁 8시에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 1시경에 예배가 끝났고, 참석한 30명 모두가 함께 간단한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전 9시 30분에 시과를 드리고 아침 식사와 함께 대주교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드레아 성인의 증보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인천 성당 신자총회 공고** ▷ 오는 12월 22일(주일) 정오에 제35회 신자총회가 개최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신자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19년 사업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2. 2019년 회계결산 및 2020년 회계예산
 3. 운영위원, 단체장 선임 및 연임신자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신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년도회비 5,000원 납부자에 한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 12월 12일(목) 성 스피리돈 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